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육성방안

송 두 범(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장)

1. 서론

인구감소·고령화·부녀화로 공동화되고 활력을 상실한 우리 나라 농촌에게 던져진 핵심 화두는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어떻게 보전하며, 농촌주민의 소득을 어떻게 증대하고, 농촌다운 지역사회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농촌-도시간의 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다시 말해, 농업·농촌·농민이 안고 있는 입체적 어려움을 농촌 스스로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민들과의 교류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농촌과 도시의 교류를 통하여 인구과소로 폐쇄화되고 있는 농촌을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의 대표적인 것으로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을 들 수 있다.

그동안 농어촌발전특별법(1990)과 농어촌정비법(1994)은 그린투어리즘 태동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농촌지역의 유희자원을 휴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다.¹⁾

그러나 지금까지 그린투어리즘을 대표하던 관광농원과 농어촌휴양단지 등으로는 농업을 이용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라는 측면을 담아낼 수 없다. 때문에 국토와 유희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대안으로서 그린투어리즘은 낙후된 농업·농촌을 개발한다는 차원을 넘어 ‘전통문화와 복지향상’, ‘도시와 농촌의 교류’, 및 ‘유희농지활용’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그린투어리즘 관련 시범마을 중 충청남도 내에 소재하는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및 농가단위 그린투어리즘 현황 및 문제점, 추진실태를 분석한 다음,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및 추진과제를 제시코자 한다.

2. 그린투어리즘의 정의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²⁾이라는 용어는 국가와 지역, 연구자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용어 또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념을 일반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1) 정기환,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제24권 제2호 (2001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p.73.

2) 녹색관광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린투어리즘으로 사용한다.

유럽에서는 그린투어리즘과 같은 의미의 내용을 갖는 용어로 농촌관광(rural tourism), 연성관광(soft tourism),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 인간적인 관광(human tourism), 자연관광(nature tourism), 책임있는 관광(responsible tourism), 생태관광(eco-tourism),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등 다양하게 혼용하고 있다.³⁾

영국(1997)⁴⁾에서는 그린투어리즘이라고 할 경우 ‘그린(green)’은 단지 ‘푸름(綠)’이나 ‘자연(自然)’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모든 생명의 존중, 자원의 적정이용, 다양함의 평가, 또는 모든 생물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인식이 ‘그린’개념의 바탕을 이룬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에서 여러 가지 대상(예를 들면, 농업이나 환경 등)의 이해, 자기행동의 도덕성, 나아가 문제의 접근방법까지 말하자면 한 사람의 인생관이나 생활양식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치관, 자세, 규범에 따라 농촌지역과 도시를 즐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박광순(1998)⁵⁾은 그린투어리즘이란 첫째, 있는 그대로의 자연(자연성과 고장의 생활문화)이야말로 그린투어리즘의 무대요 자원(자산)이다. 둘째, 외부자본에 의한 대대적인 개발이 아니라 지역민(혹은 자본)에 의한 자연의 재생산 법칙을 해치지 않는(친환경적) 범위내의 소규모 개발이다. 셋째, 도시인과의 교류(방문자의 농림어업의 체험과 호스트와의 개인적인 교분-리프트-정주)가 핵심이다. 넷째, 단체로 몰려와서 보고 스쳐가는 주유형(周遊型)관광이 아니라 가족 혹은 소집단이 머물면서 체험하는 체재형 여가활동이다.

이호철(2001)⁶⁾은 그린투어리즘이란 “우리 농업의 생산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다수의 국민들에게 상품의 형태로 제공하는 새로운 농업형태이다. 즉, 농업행위 그 자체를 상품화하여 하나의 장소에 고도로 집적한 형태로 농사체험과 농업환경까지도 스스로 상품으로 삼는 새로운 유형의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산림청(1999)은 광의의 그린투어리즘은 친환경적, 환경보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관광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칭하며, 협의의 그린투어리즘은 주로 농산촌지역에서 일어나는 관광, 즉, 농촌관광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농림부(2001)에서는 그린투어리즘을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교류형태로 추진되는 체류형 여가활동”으로 정의하고, 그린투어리즘을 통해 도시민은 여유 있는 휴식·휴양공간, 새로운 체험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농촌주민들은 농산물판매(1차 산업), 가공사업(2차산업), 숙박·음식물서비스(3차 산업) 등 소득기회를 확보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린투어리즘은 농업관광과 농촌관광을 포함할 뿐 아니라 생태관광의 일부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강신점·김정연, 녹색관광, 1997, pp.27~28.

4) 강신점·김정연, 위의 책, p.27.

5) 박광순, 위의 논문, p.168.

6) 이호철, 앞의 논문, p.172.

7) http://www.maf.go.kr/html/issue/issue09_1.htm

3. 그린투어리즘 정책현황 및 문제점

1) 그린투어리즘 정책 현황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농외소득 의존도가 높은 농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취업이나 농업이외의 사업을 통한 농외소득기회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농촌의 고용을 확대하고 농가와 농촌주민의 다양한 사업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앙정부 주도 농촌관광 관련정책의 주요사업은 <표 1>과 같다.

<표 1> 중앙정부주도의 농촌관광 관련정책 주요사업

구 분	사 업 명	사 업 특 징	사업비	비고
농 립 부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농촌관광을 위한 마을기반정비	2억 18개마을	공모
농촌진흥청	전통테마마을	테마를 주제로 마을단위 농촌관광	1억 9개마을	공모
행정자치부	아름마을가꾸기	소득증대를 목표로 한 마을단위 종합개발방식	15~20억 9개마을	공모
환 경 부	생태우수마을	생태우수마을 홍보	없음	공모
해양수산부	어촌체험관광 마을	어업 및 일상생활체험 및 지역주민과 교류	20억원 57개소	공모
산 립 청	산촌종합개발 사업	마을특성과 입지여건에 따른 특색있는 개발	14억원 240개마을	지정

이와 같이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대표적인 사업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원도·순창군과 충청남도에서는 금산군 등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하는 형태의 관광개발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소수의 자치단체에 한정된 경향이다.

2)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문제점

그린투어리즘과 관련된 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문화관광개발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경우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고 대신 농림부(농촌진흥청), 행정자치부, 환경부, 산림청 등에서 그린투어리즘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농촌관광정책은 첫째, 시설공급에 치중하여 농촌지역 고유의 장점과 매력을 자원화하는데 소홀하였고, 둘째, 농촌주민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여 부실경영을 초래하였으며, 셋째,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지속성있는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에서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활성화라는 의의를 살리는데는 한계를 보였다⁸⁾고 할 수 있다.

4.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사례조사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 농협의 팜스테이 등을 실시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름마을은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전통테마마을은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거북이마을, 팜스테이는 금산군 남일면 신정2리 홍도마을 등 4개 마을이다.

조사도구는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는 마을단위 및 농가단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마을단위는 체재시설, 체험, 교육, 생산 및 판매, 홍보, 네트워크, 외부지원 등의 항목과 세부분항으로 구성하였고, 농가의 경우 그린투어리즘 도입, 운영, 외부지원 등의 항목과 세부분항으로 구성하였다.

면접은 마을단위 체크리스트는 리장이나 그린투어리즘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지도자, 농가단위인터뷰는 그린투어리즘이나 팜스테이를 실시하고 있는 농가경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결과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마을단위⁹⁾ 및 농가단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마을단위

첫째, 대부분의 마을들은 기존농가에 부속한 농가민박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음식물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방문객이 원할 경우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편의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둘째, 도시민들을 위한 농작업체험이 가능했으며 고추따기, 벼수확, 인삼파종 및 캐기, 배수

8) 박시현·송미령, “농어촌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KREI·농특회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p.13.

9)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마을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구단위로 지정되지만 편의상 마을단위로 정의하기로 한다.

확 등이 대표적인 체험프로그램이었다. 또한 밤줍기, 매뚜기 잡기, 고기잡기, 고사리채취, 버섯 채취 등 마을특성을 고려한 이벤트로 개최하고 있었으며 이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도 보유하고 있었다.

셋째,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하여 마을지도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그린투어리즘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회 구성은 미흡하였으나, 대부분의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넷째, 대부분의 마을들은 외부에 자랑할만한 농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방문객들을 위해 직접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친환경 농축임산물 생산도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나, 대도시 백화점등과 농산물을 계약재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마을홍보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마을내 개별농장단위로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다. 또한 마을을 소개하는 입간판 및 도로안내판이 미흡하고, 마을을 소개하는 홍보·안내책자, 팸플렛 등도 발간하지 않고 있었다.

여섯째, 모든 마을은 군청·농업기술센터 등 행정기관과는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마을과는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도시의 아파트단지나 단체 등과 직거래 및 도농교류는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일곱째, 대부분은 마을은 행정기관 및 외부전문가들이 연구 및 자문을 위해 참여하고 있었으며, 행정기관에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다.

2) 농가단위

그린투어리즘은 농가단위의 비즈니스이고 농가민박이 대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농가단위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농가민박도입은 도시민들과의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안정적 소득보장이 계기가 되었으며, 창업시 법적인 어려움은 없었으나 민박내 음식물 제공 등의 경우 마을내 음식점과 갈등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창업시의 재원은 자체충당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농가부업형태로 창업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름철에 한정되는 계절적인 특수성과 농산물 판매와 연계가 어려웠으며, 단독농가 단위로 추진하고 있었다.

둘째, 농가민박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별농가에서는 인터넷이나, 방문한 도시민들에 대한 환대 등을 통해 제방문률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또한, 농가민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농가경영교육은 선진지 현장체험을 통한 인식전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농가민박에 대한 강의, 농가민박에 참여하는 농가주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 결성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농가민박 홍보를 위해서는 농가 및 회원농가 단위 홈페이지, 농협, 행정기관, 방문자들에 대한 홍보 등의 수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은 농가민박을 이용하는 외부방문객들에게 직접 또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농가민박에 대한 실천경험의 교환을 위해 농가민박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주들이 정기적으로 연구회를 결성하여 모임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농가민박의 활성화를 위한 외부지원의 경우 우선, 행정기관의 행정적 지원은 농가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재정적으로는 농가민박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 등이었다.

3) 사례조사결과 문제점

충청남도 농가민박현황,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및 농가민박경영주를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 결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학회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린투어리즘연구 및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다. 마을지도자나 민박경영자 등의 경우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여 농가민박, 농촌전통자원 등을 이용하여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린투어리즘이 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안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주민들의 경우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그린투어리즘은 이제 막 눈뜨기 시작한 농촌활성화 운동으로 아직까지 정보가 부족하다. 그린투어리즘의 핵심은 농가민박과 직거래, 농촌체험 및 교육 등이지만, 아직까지 농가민박은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곳보다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대중관광지 주변에 입지하고 있어 농촌체험 및 교육보다는 숙박기능이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민박의 창업 및 운영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도 부재한 실정이다.

셋째, 외부방문객들을 위한 농작업체험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프로그램안내자를 마을마다 보유하고 있으나, 방문객들이 마을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농촌지역에는 향교, 서원, 전통놀이문화, 문화재 등 유무형 전통문화가 다양하게 산재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도시민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그린투어리즘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조사대상마을 중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한 교육시설은 홍동면 문당리의 환경농업교육관이 있었으나, 대부분 자치단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 결성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작목반과 유사한 형태로 농가민박을 실시하는 농가주들이 자생적인 조직을 결성하여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었다.

여섯째,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가민박이 반드시 지역의 농특산물 직거래와 연계될 필요성이 있다. 홍도마을, 수통리, 합전리 등의 일부 농가에서는 환경농특산물, 지역농특산물, 농특산물 가공품 등을 인터넷 및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직거래하고 있으나 농산물 직거래는 일부 선도농가에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곱째,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단위 인터넷홈페이지구축, 홍보책자, 마을안내판 등의 홍보방안이 시급하다. 현재 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의 경우도 홍도마을과 수통리 등에 농협홈스테이 마을지정안내판을 제외하고는 외부방문객이 지정여부를 알 수 있는 홍보물 및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여덟째, 대부분의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외부전문가들로부터는 자문 등을 받고 있었으나,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는 마을들과의 정보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선진기법 등의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홉째, 농가민박경영자들은 여름철에 한정된 계절적 특수성으로 인해 시설투자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여름휴가철에 집중됨으로써 시설가동률이 낮은 겨울 등의 시설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농가민박에 대한 투자욕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농가민박을 중심으로 한 그린투어리즘은 몇몇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빈방이나 빈집을 이용하여 도시방문객을 유인함으로써 일반가정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농촌마을 주변의 환경 및 경관정비가 우선적으로 해결될 필요성이 있으나, 아직은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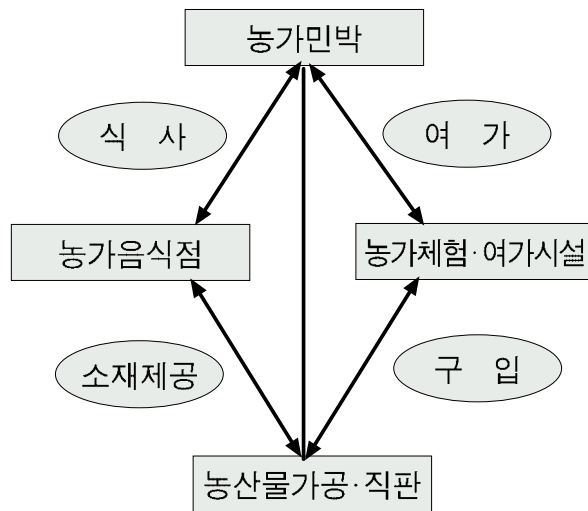
5.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및 향후과제

1) 그린투어리즘 추진의 기본전제

그린투어리즘은 지역을 방문한 방문객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농림업, 농지 및 임지의 보전과 진흥에 도움이 되고 자연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며, 주민의 문화나 생활기반을 보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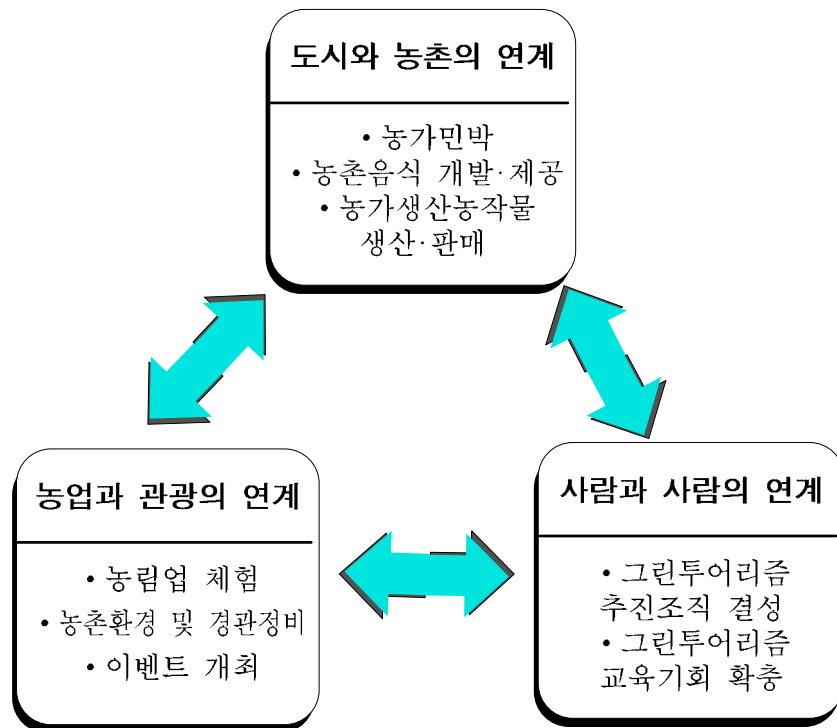
이러한 점에서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농림업에 매력을 느끼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농업·농촌’을 재구축하기 위해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되, 그 목표는 ‘농촌다움의 창조’하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주체가 된 민박, 농가음식점, 농가에 의한 체험·여가시설의 운영, 농축산물이 가공·직판이라는 4개 부문이 하나의 지역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10) 산림청, 앞의 책, p.131.



[그림 1] 그린투어리즘 추진전략

위와 같은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도시와 농촌의 연계, 둘째, 농업과 관광의 연계, 셋째, 사람과 사람의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2] 그린투어리즘 추진방안

2)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1) 도시와 농촌의 연계

① 농가민박

농가가 기존주택을 이용하여 부업으로 추진하는 농가민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숙박시설이나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농촌의 인심과 농가민박경영주의 환대에 기초하여 다양한 농작업 및 농촌전통체험활동, 농특산물의 직접판매 등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독세대, 노령부부세대 등의 거주하지 않는 빈방을 이용하거나, 시·군마다 산재하고 있는 빈집을 수리하여 농가민박으로 개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마을에서 공동관리하되 숙박기능만 제공하고 음식은 공동으로 제공하거나, 방문객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충청남도의 농가민박 활성화를 위해서는 1단계(2003~2005년)로 농가민박실태 및 주민의견조사 등을 통해 민박수용능력을 조사하고, 민박의 공급량을 판단한 다음, 민박환경 개선계획 수립과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민박 및 지원조직을 결성하고, 민박경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방법, 체험프로그램 및 향토요리 등을 개발하며, 실시간으로 홍보·예약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2단계(2005년 이후)는 유럽과 같이 민박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충청남도 농가민박연맹(가칭)’의 가입기준과 등급결정기준 설정 및 엄격한 적용을 통해 민박서비스 품질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박단체에 의한 교육훈련 및 지원단체에 의한 자문·연수교육 등 민박경영자 육성, 민박정보 및 예약서비스확대 등 민박네트워크 확대, 자금지원 및 세제상 우대조치 등 민박경영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농촌음식의 개발 및 제공

농가민박에서 일정인원의 범위 내에서는 음식물을 제공하고, 만약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여 법제화하여 농가민박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조장할 필요가 있다. 농가민박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공할 수 없는지를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유형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음식물을 제공하는 민박이라면 유럽에서처럼 민박소개책자나, 안내판 등에 음식물 제공이 가능하다는 표식을 하는 것도 도시민들을 위한 배려하고 판단된다.

충청남도에는 시·군마다 향토음식이 분포하고 있어 농가민박에서는 이러한 음식을 중심으로 방문객에게 제공하거나, 농가고유의 음식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가민박을 추진하는 모든 가구가 음식물 제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는 숙박을 여러 곳에서 하되, 음식물은 한곳의 농가민박에서 제공하는 형태(예, 홍도마을)도 고려해 볼 만하다.

③ 농가생산 농작물 생산 및 판매

마을 내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농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시민들의 재방문률은 높일 수 있다. 또한, 농가민박경영주는 농산물을 방문객 및 인터넷판매에만 그치지 말고, 지역의 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한 계약재배 등을 통해 판로를 확대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농업과 관광의 연계

① 외부방문객의 농림업 체험

마을 내에 공동농장을 마련하여 도시민들을 위해 분양하는 주말농장형, 또는 그린투어리즘 농가에서 도시민들이 농작업을 체험하는 농장체험형 등으로 구분하여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형태로 농작업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말농장형의 경우는 도시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입지한 농가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며, 농장체험형은 한 두 번 만의 방문을 통해서도 부담 없이 농작업을 체험할 있다는 점과 농촌에 체재하면서 농촌 및 농작업을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에서도 도입가능한 방안이다. 이러한 농작업체험이 환경농업과 결부된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농촌환경 및 경관정비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자원 및 농업경관은 매우 중요한 상품가치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경관을 그린투어리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존해야 할 경관 그리고 복원 및 창조해야 할 경관에 대해 주민들의 합의형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환경 및 경관은 마을공동의 자산으로서 개별농가가 제공할 수 없는 농촌다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가꾸어 가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린투어리즘의 효율적 추진에 초점을 둔 마을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③ 이벤트 개최

그린투어리즘에서의 이벤트란, 농촌과 관련되어야 하며 농촌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마을내에 이벤트를 개최할 만한 특별한 소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성공여부를 떠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주민들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훌륭한 이벤트소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중인 마을의 경우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이벤트개발에 노력하되, 특별한 특성이 없는 마을의 경우 그린투어 농가들의 학습 및 선진지 벤치마킹 등의 과정을 통한 이벤트 개발노력도 필요하다.

(3) 사람과 사람의 연계

①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 결성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은 반드시 군·면과 같이 행정구역단위일 필요는 없으며, 마을단위나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는 개별농가 연합체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히려 농가민박을 추진하는 개별농가나 부녀회 등이 주도하고, 외부전문가나 관련공무원(군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등)이 포함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그린투어를 추진하는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쉽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단위를 중심으로 기존작목반을 활용하거나 학습회나 연구모임 형태로 구성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가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린투어리즘의 추진조직은 공식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마을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조직이나 마을내 자치조직이 담당하는 경우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특히, 농가민박의 경우는 주부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마을내 부녀회 조직을 활용하되, 군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을 받아 추진조직을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그린투어리즘 교육기회 확충

농가민박 등 경영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농가비즈니스적인 사고나 마케팅 등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내용에는 그린투어리즘의 편익, 발생가능한 문제와 그 해결책, 그린투어리즘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편익을 얻는 방법, 환경과 역사문화 보전의 중요성, 환경질의 모니터링 방법 등이 포함된다. 소규모 책자(문맹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활용)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방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을 개최하는 방법, 그린투어리즘과 마을활성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농가민박 등의 경영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경영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그린투어리즘의 기본사항과 고객확보 등의 마케팅, 접객방법,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 관련 법률 및 세금 등을 교육하거나 그린투어리즘의 실천경험을 상호교환하는 것이다.

3)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추진과제

(1) 법·제도의 제정 및 정비

농가민박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여 현재 농가민박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문제들을 점차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민박업 대상자에 대한 규칙 제정시 현재 1년 이상 거주농민에 한정된 것을 현지 거주농민 외에도 관련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여 전문적으로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규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민박업 연합체 등이 고품격 농가민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아울러 등급지정 및 서비스수준 등 심사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규정하여, 민박농가의 발전을 유도하고, 농가민박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농가민박뿐 아니라 농촌환경 및 농촌경관 또한 그린투어리즘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법규에는 토지이용 및 주거환경 정비, 공공시설의 정비, 공원, 녹지 및 녹지대, 주차장의 설치, 방범등의 설치, 소방용 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급수시설, 지하수의 채취, 도로, 우수 및 생활하수, 오수처리시설, 자연환경의 보전, 문화재 보전, 일조의 확보, 공해방지, 건축물의 기준, 옥외광고물의 규제 등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법규를 제정할 의사가 없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충청남도그린투어리즘육성지원조례”나 “○○시·군그린투어리즘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조례의 내용으로는 그린투어리즘 추진위원회구성, 농촌자원의 보존에 대한 지원, 그린투어리즘 추진농가(민박농가)나 마을에 대한 재정 지원, 그린투어리즘 추진 우수마을에 대한 표창, 그린투어리즘 연구회 결성, 빈집의 활용, 농가민박이나 레스토랑의 등급구분 및 품질인증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2) 농가비즈니스 및 마케팅기법 개발

농가부업정도로 전문적인 지식 없이 경영하는 농가민박에서 벗어나, 농업과 관광을 어떻게 결합하고, 숙박시설이나 농가음식점업 운영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가경영이라는 관점에서 그린투어리즘의 자리매김이 가능한지를 지속적으로 실험해나갈 필요가 있다.

마을을 단위로 하여 지역전체에서의 연계시스템을 만들고, 지역전체를 판매할 수 있는 소위 지역마케팅기법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린투어리즘의 비즈니스 및 마케팅을 위해서는 경영자들의 전문적인 경영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 및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법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린투어리즘 네트워크 구축

그린투어리즘 네트워크는 농가민박간 네트워크, 농가민박과 여행사·관광단체간 네트워크, 농가민박과 생산자 단체·농업기술센터·농협·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등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가민박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우선 농가민박을 함께 하는 농가들과 횡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그룹들과의 종횡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결론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주체의 체계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그린투어리즘이 활성화되지 못한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담당자는 순창군의 경험을 통해 아는 바와 같이 도나 시·군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그린투어리즘은 농림수산물 농정유통과의 소관사항으로 그린투어리즘의 추진을 위한 도차원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각 시·군의 그린투어리즘 잠재력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에는 그린투어리즘 잠재력이 가장 큰 시·군을 선정하고, 그린투어리즘을 구성하는 농어촌 민박실태(민박수용능력, 민박 및 팜스테이 실시농가, 향토음식개발 등), 농촌 및 농작업체험프로그램 등에 기초한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또는 농가를 지정한 다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충남도의 그린투어리즘은 태동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그린투어리즘 시책을 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약조건이 있다. 시범마을·농가 지정을 통해 시행착오와 그 효과를 분석한 다음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농산과 등이 소관부서이고 충남도의 정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그린투어리즘을 군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 및 시·군 자체조사 결과 그린투어리즘을 시·군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할 경우 도계획과 연동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시·군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우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내 그린투어리즘 잠재력을 분석한 다음 역량을 지닌 마을과 개별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 속에서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을 도 및 시·군 자치단체, 마을공동체, 개별농가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충청남도나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도민의 인식제고 방안 모색, 그린투어리즘 실시를 위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 및 농가민박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그린투어리즘 관련 조례제정, 그린투어리즘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 구성의 지원,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홍보 및 정보교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마을공동체에서는 그린투어리즘 도입을 위한 주민간 합의도출, 마을의 특성을 살린 마을공동시설의 정비 및 확충, 그린투어리즘 홍보를 위한 마을홈페이지 구축, 특색 있는 농특산물 판매시설 설치, 행정기관 및 외부전문그룹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마을단위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 구성, 그린투어리즘 실시마을과의 교류협력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개별농가에서는 도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농가민박시설 확충, 도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농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농가비즈니스 및 마케팅능력 확보, 농가

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농작업 체험현장 확보,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개별농가와
의 정보교류, 그린투어리즘 관련 연구회 등에 가입, 그린투어리즘 관련 세미나·학습회
등에 참가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구 분	시책방안
충청남도 시·군자치단체	① 그린투어리즘 창업지원단(창업컨설팅그룹)의 구성 ② 충청남도 및 시·군 농가민박연맹 창립지원 ③ 농가민박인증제 및 등급제도 도입 ④ 그린투어리즘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⑤ 도 및 시·군 차원의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육성 ⑥ 그린투어리즘 우수마을에 대한 표창 ⑦ 그린투어리즘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자격제도 운영 ⑧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개발 경진대회 개최 ⑨ 그린투어리즘 추진센터 설립
마을공동체	① 그린투어리즘 도입을 위한 주민간 합의 도출 ② 그린투어리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마을계획 수립 ③ 마을의 특성을 살린 마을공동시설의 정비 및 확충 ④ 마을홈페이지 및 안내판 등 홍보수단 개발 ⑤ 마을단위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 구성 ⑥ 그린투어리즘 추진마을과 교류협력
개별농가	① 농가비즈니스 및 마케팅능력 확보 ② 농가민박시설의 정비 및 확충 ③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농작업 체험농장 확보 ④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개별농가와의 정보교류 ⑤ 그린투어리즘 연구회 및 학습회 등에 참가 ⑥ 개별농가 고유의 음식개발 및 제공 ⑦ 환경농법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판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와 시·군자치단체, 마을공동체, 개별농가 등은 각자의 역
할에 충실해야 하겠지만, 보다 효율적인 그린투어리즘의 추진을 위해서는 3자간의 파트너
십이 요구된다. 즉, 도와 시·군자치단체-마을공동체-개별농가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력관
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린투어리즘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3자간의 연대는 처음에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얻어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점차 마을공동체나 개별농가가 연계·협력하여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참 고 문 헌

- 강신겸, “여가시간 확대와 농촌관광의 가능성”, 여가와 농촌활성화 심포지엄, 전국농업기술자협회·삼성경제연구소, 2001.
- 강신겸·김정연 (역), 「녹색관광」, 일신사, 1997.
- 경성전문대학 관광농업연구소, 「관광농촌마을조성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부, 1995.
- 김범수 외, “한국과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비교연구”, 관광연구, 제16권 제1호(통권 17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01.
- 김범수·이주희, “농산촌에 있어서 Green Tourism의 전개를 위한 농촌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의식조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9권 제3호, 한국지역개발학회, 1997.
- 농림부, 「그린투어리즘을 새로운 농외소득원으로-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 보도자료, 2001. 6. 14.
- 박광순, “일본의 중산간지역의 활성화와 그린투어리즘: 九州北部地域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1권 제1호, 전남대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1998.
- 박시현·송미령, “농어촌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KREI·농특회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 산림청, 녹색관광과 산촌활성화, 1999.
- 송미령, “농촌마을 관광모델과 주민참여 방안,” 「여가와 농촌활성화 심포지엄」, 전국농업기술자협회·삼성경제연구소, 2001. 7. 5.
- 순창군,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기본구상, 1999.
- 유승우·최동주, “일본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농촌경제, 제24권 제3호(2001 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이동기, “농촌자원을 이용한 그린투어리즘”, 지방자치발전 및 행정개혁, 2001년도 동계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지방자치학회, 2002.
- 이호철,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지역사회개발방안 : 대구시의 약초 시민농원 개발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0집, 한국농촌사회학회, 2000.
- 임득춘, 그린투어리즘 추진으로 아름다운 지역매력 부각,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0.
- 정기환,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제24권 2제2호(2001 여름), 2001.
- 정안성,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농촌지역의 활성화 : 전북 무조, 진안, 장수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5권 2호, 한국산림휴양학회, 2001.
- 조계현 외 공역, 녹색관광, 누리예, 2000.
- 행정자치부, 「21세기 새로운 농촌 만들기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001.
- Dernoi, L. A., Prospects of Rural Tourism; Needs & Opportunitie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16(10), 1991.

Gunn, Clare A., *Tourism Planning*, New York : Taylor & Francis, 1988.
Hill, Brian J., The Future of rural Tourism, *Park & Recreation*, September 1993.
http://www.maf.go.kr/html/issue/issue09_1.htm
<http://www.milenium.pe.kr/ustour.htm>
山崎光博・中村攻・井上和衛, 「日本型グリーン・ツーリズム」, 都市文化社, 1996.